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기자하 칼럼



나 혼자만의 비밀이 하나 있다. 아무도 모른다. 아니 모르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깨닳아 있어서다. 무었일까. 다 알지 못하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다. 결혼할 때 분명 아내에게 반지를 손에 끼워주었다. 그것은 약속이다. 그것이 무엇에 대한 약속일까?

나는 최근 우리의 수천 년 전 고전인 '천부경(天符經)'을 새롭게 해석하는 공부를 하고 있다. 목적이 있어서다. '개벽(開闢)', 더욱이 '화엄개벽(華嚴開闢)'의 역학(易學)적 실천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전래의 복희역(伏羲易), 문왕역(文王易), 정역(正易)과 함께 내가 10년 전 부산 해운대 등탑암(燈塔庵)에 머물 때 어느 날 문득 허공에서 본 새로운 팔계인 등탑역(燈塔易)을 모두 단 천부경 안에서 종합하는 '오역(五易)'작업을 위해서다.

물론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큰 기쁨인 것은 그 모든 역리(易理)가 천부경 후반의 기이한 한마디인 '묘연(妙衍)'에 의해 집약되고 풀려나간다는 점이고 더욱이 그 묘연이 나의 미학적 클리세인 '흔 그늘'과 함께 여성성, 모성의 우주생명학적 비의

(秘義)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나는 얼마 전 이 공부를 더 본격화하기 위해 화엄성지(華嚴聖地)라고 불리는 오대산에 들어간 적이 있다. 산속에서 공부하다가 어느 날 새벽 갑자기 바로 이 묘연의 뜻 가운데 '반지'가 들어있음을 깨닫고

나 혼자만의 비밀

또 이어서 이 반지에 얹힌 나의 한 옛 꿈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꿈은 이렇다.

꿈에 어느 참으로 아름답고 고백한 한 귀부인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뒤 내게 사랑의 약속으로 반지를 사서 끼워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엉뚱나게 유흥적인 순간이었음에도 웬일인지 나는 순식간에 가볍게 이를 거절하고 말았다. 왜 그랬을까?

지금까지도, 비록 꿈이었지만 그 거절의 이유가 내게 잘 짚이질 않았는데 이날 새벽녘 그 이유가 내 심장에 떨어져 떠오른 것이다. 무엇이었을까? 하기야 내가

이 꿈을 기억할 때마다 이상하게도 '반지'라는 말이 늘 '약속'이란 말로 바뀌어서 기억되곤 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 '반지'가 '약속'으로서 묘연의 가장 중요한 참뜻의 하나라는 것 이었다. 만약 그 약속, 즉 그 반지를 꿈에 그 여자에게 끼워주었다면 나는 그 때 즉 사했을 것이란 생각도 이어 떠올랐다.

즉사라? 즉사라? 즉사라?

무슨 즉사겠는가마는 인격적 파탄 같은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는가!

왜 그것이 그리도 중요한 것이었을까?

꿈에 불과한 일인데 말이다.

그 아침 동터를 무렵 창문을 열었을 때

분명사의 진보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진실이었을까? 도리어 거꾸로가 아닌가? 반지의 폐기의 역사는 인류 정신사의 퇴보의 시작, 즉사의 시작, 인격적 파탄의 시작은 아니었을까?

쉽게 알려진 대로라면 반지는 우선 비선형(非線形)적 시간관이자 자기회귀의 생명관이며 이를바 우로보로스(Ouroboros) 또는 불교에서 '용화(龍化)'라고 불리는 고대 여성상위의 남녀평등관의 상징적 부호다.

'여성상위'라 했다.

그것은 모성이나 자애로움, 사랑, 그리고 성(性)적 고호관과 그 자체 안에 들어 있는 신령한 세계이탈의 상징이었다.

바로 그것이 '묘연'이란 뜻이다. '오묘한 물 가득 고인 연못'이 곧 묘연인데 이것이 곧 반지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새로운 시대의 동아시아의 세계 비전, '화엄개벽'의 요체인 오역의 열쇠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역시 나 혼자만의 비밀로 그냥 간직하는 게 나을 뻔 했다.

하지만 이 좋은 이야기를 혹시라도 요즈음 내게 한없이 깔깔맞은 내 아내가 듣고 혹시라도, 단 한번이라는 방긋 한 그늘 같은, 하얗고도 그윽한 미소를 내게 보여줬으면 하는 은근한 마음에서 주제 없이 공개했다. 허허허, 역시 묘연이다!

〈시민·동국대 석좌교수〉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헌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신삼식

사람들은 개성을 갖고 자기만의 특색을 지니며 산다. 하지만, 사람들은 남과 다른 것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쓴다. 물론 다르다는 것이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엔 문제가 된다. 영화 배우나 탤런트의 경우는 자기만의 특색을 지니는 것이 필요하겠고, 개성 있는 얼굴일수록, 장점일 것이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특히 어린 나이일수록 남과 다른 것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남과 다른 것이 비단 성격과 외모뿐이겠는가! 피부과 진료를 하다 보면 흥터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의외로 많다.

치료를 할 수 없다고 믿고 있는 틈살도 피부에 생긴 흥터이다. 하지만 이런 흥터들도 치료시키기를 놓치지 않으면 치료가 가능하다.

우선 수술자국이나 틈살을 보더라도 붉게 진행할 때나 수술 후 실을 뺀 직후에 바로 레이저 시술을 하게 되면 흥터를 줄이고,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흥터가 이미 하얗게 변해버린 후라면 치료가 더 힘들어 진다. 예전에는 흥터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미리 포기해버린 것이다.

현재는 레이저의 발달로 흥터를 효과

기 고



노두근

'남도'하면 웬지 친근감이 든다. 북풍 한절 몰아치는 겨울이면 생각나는 곳, 따뜻한 남쪽 나라 남도! 여름이 오면 푸른 과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낭만의 고향 남도가 떠오른다.

남도에는 2천여 개의 아름다운 섬과,

우리나라 해안선의 반인 64Km로 전세계에서 가장 긴 리아스식 해안이 있다. 해안의 개별에는 계란 쪽뚱어탕 사람들을 이 응기증기 밤하늘의 별들처럼 모여 살고 있다.

남도에는 천혜의 자연경관 외에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숨은 보

은퇴한 교수·교사, 기업인 등 각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도정 각 분야에서 혁신과 봉사를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 이들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해 도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 사업이다.

'남도친구들' 응모자격은 퇴직한 대학교수·교사·기업가(CEO), 의사, 문화예술, 체육, 외국어 통역자, 신지식인 등 사회 각 분야별 기능 및 기술보유자, 기타 전문가 등이다. 참가자에게는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는 지급한다. 자원봉사자가 봉

내게 흥터란 무엇인가!

한 순간의 사고로 남은 상처가 큰 스트레스인 것이다. 어렸을 때 다친 상처, 사춘기에 여드름으로 생긴 흥터, 사고나 질환으로 수술 후에 생긴 흥터, 화상으로 입은 흥터 등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만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진 상처나 흥터를 치료하기 쉽지 않은 암 치료가 힘든 넓은 화상 흥터나, 사고로 생긴 큰 흥터의 경우 피부이식을 하거나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법이었기 때문에 평생 훈장처럼 지니고 살아야만 했다. 하지만 최근 레이저의 발달로 여러 형태의 흥터에 대해 치료가 가능해졌다.

가장 흔한 형태의 흥터는 여드름 흥터다. 사춘기에 생긴 여드름 편리를 잘못했을 때 흥터를 만든다. 다음으로 사고나 질환으로 수술 후에 남은 수술 자국이다. 또 심각한 흥터를 생각한다면 화상으로 인한 흥터일 것이다. 흔히

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수술 직후나 틈살이 생길 때 바로 시너지레이저로 치료하면 빠른 효과를 보인다. 하지만 치료시기를 놓쳐 이미 살갗으로 변해버린 흥터는 프랙션레이저치료로 치료하게 된다. 이는 피부에 수천 개의 점을 찍은 것처럼 레이저가 조사되고 그 점 주위에는 정상 피부가 남아 있도록 치료하는 방식으로 주변의 건강한 조직이 제거된 조직의 회복을 도우면서 피부가 재생시키게 된다.

외국인들도 남도방을 다녀가면 다들 감탄사를 연발한다. 지난 2007년 치파슬로(슬로시티) 국제연맹 베르토회장이 완도의 청간도를 방문했을 때 첫마디가 "절안하다. 그냥 이곳에서 살고 싶다"라고 한 일화는 남도 땅의 재발견이라 해석하고 싶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남도의 비옥한 땅, 깨끗한 자연, 그리고 탁월한 경관을 담보로 하여 10년 아니 20년 후에 살기 좋은 남도 땅을 계획해 나가야 한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한다.

전남도의 시책사업 '녹색의 땅 남도 친구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시작이다. '남도 친구들'은 현직에서

석들이 산하에서 반짝이고 있다. 풍부한 일조량과 따뜻한 기온, 깨끗한 공기 그리고 낮은 땅값과 저렴한 생활비 등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5가지가 남도를 들여다 볼 줄 아는 이에게는 아이아 몬드처럼 빛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들도 남도방을 다녀가면 다들 감탄사를 연발한다. 지난 2007년 치파슬로(슬로시티) 국제연맹 베르토회장이 완도의 청간도를 방문했을 때 첫마디가 "절안하다. 그냥 이곳에서 살고 싶다"라고 한 일화는 남도 땅의 재발견이라 해석하고 싶다.

프랑스의 남동부에 있는 프로방스 지역에는 '천혜의 숲'이라 부르는 거대한 땅갈무 숲이 있다. 이 숲은 자연을 사랑하는 어느 양치기 노인의 희망 스토리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 노인은 매일 100개씩 죽는 날까지 10만 개의 도토리를 땅에 심었는데 이것이 후일 '기적의 숲'이 되어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이곳에 몰려들었다고 한다. '남도 친구들'이 전남도의 미래를 이끄는 기적의 숲이 되길 기원한다.

〈전남도 사회복지과장〉

주차장 버젓이 놔두고 인근에 불법주차라니…

요즘은 옛날에 비해 차량이 엄청 늘어났다. 유료 주차장도 있고, 개인 주차장이나 공용 주차장이 있건만 돈 몇 푼이 아까워 주차장 인근의 엄청난 불법주차 차들로 인해 시내를 오갈 때마다 항상 접촉사고의 위험에 도사리고 있다.

며칠 전에는 차를 가지고 운행 하던 중 불법주차 돼있던 차량을 피해 주차장에 들어가려다 지나가던 행인의 손목을 내 차의 뱃미로 치는 사고가 있었다. 큰 사고가 아니었지만, 그 사람의 시계에 금이 가 변상을 해줘야 했다. 이러한 불법주차가 계속된다면 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주차장이 버젓이 있고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 주차장 바로 옆에 불법주차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 그로 인해 지나가는 차량이나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운전자들이 사고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의 상당 부분은 분명 주차관리를 소홀히 한 당국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차장이 있는 인근은 더욱더 강력한 주차단속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는 불법주차 차량을 피하려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길 바란다.

▲오선진·광주시 동구 서석동

시골 비하 '촌(村)스럽다'는 표현 자제했으면

우리가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촌(村)스럽다'는 표현은 이제 정말 사라졌으면 좋겠다. 여기서 말하는 '촌(村)'은 당연히 농촌이며 시골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농촌은 모두 다 세련되지 못하고 어리숙한가. 물론 농민들이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어리숙하지 않고 현명하다.

그러나 세련되지 못한다는 말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련과 비세련을 구분할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필요하다. 도시 사람들이 입고 치장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죄다 세련이고, 농민과 농촌 거주 사람들의 말과 행동

차림새는 모두 세련되지 못한 건가?

물론 그렇지 않다. 요즘 TV를 보면 농어촌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많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농어촌과 농어민 모두는 하나님과 다 순박하고 착하고 따뜻한 정이 넘치고, 자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곳이다. 신선하고 안전한 멎을거리 제공해 주는 곳이며 사람 사는 멎새가 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의 고향이 우리 농어촌이다. 이제 그런 곳을 빼앗아 사용하는 '촌스럽다'는 말은 영원히 없애보자.

▲이정애·목포시 보광동

시설

신문시장 불·탈법 부추기는 이상한 공정위

90곳 중 89곳이 상품권 및 현금과 자본, 선풍기 등 불법경품을 제공하거나 최고 12개월의 무가치를 뿐이라는 등 신문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경품을 통한 독자 확장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거대 신문사의 여론 독점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문제다.

신문고시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공정위의 태도는 한마디로 무책임한 발상이다. 신문 시장에 만연한 불법경품이 신문고시와 신고포상제 실시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떠벌 신문시장의 불·탈법을 더욱 부추기겠다니 공정위가 제정신인지 물고 싶다.

현행 신문고시에 따르면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넘는 무가치 및 경품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무분별한 경품 및 무가지 제공으로 신문시장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지난 15~16일 조선·중앙·동아·한겨레 등 4개 신문의 서울지역 지국 가운데 각 3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중·동·지국

정부, 시·도 수질오염총량제 지원 늘려야

광주시가 정부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방침에 따라 추진하는 광주천 하수 관리 정비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고 한다. 사업에 소요되는 3조원의 재원마련이 막막해서다. 시가 하수관거 일체 정비에 나선 이유는 매일 영산강으로 흘러드는 70만 푸의 광주천 물(BOD 7~9ppm)이 영산강 수질악화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대부분을 광주시에 떠넘기는 바람에 강 살리기의 중심은 수질개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17%인 3조9천억원만 편성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오는 2015년까지 광주천 수질을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5.6 ppm 이하, TP(물 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을 1.62ppm 이하로 맞추기 위해 빗물과 오수가 함께 배출되는 기존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는 고작 30%다. 사설상 시가 2조원이 넘는

無等鼓

일자리 부족이 심각하다. 이십대의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 38세까지 명예퇴직이라는 '삼팔선', 45세가 정년이라는 '사오정'은 점잖은 축에 속한다.

다음달 비정규직 대규모 해고까지 예고되면서 '고용 신조어'들은 더 절실히 있다. 시가 90%가 백수라는 '이구백', 30대 초반에 명예퇴직하는 '삼초령'까지 진화했다. 행정 인턴은 할 일 없이 거쳐가는 행인(行人)이 됐고, 공무원 시험 본다면 고시원 쪽방을 전전하는 '방실파'가 넘쳐난다.

우리네 실업 통계는 현실과 한참 멀다. 지난 4월 실업자 수